



가독

우리 자신이 몸으로 겪는 것처럼

김은새봄
베로니카(광안성당)

-
-

꿀벌 60억 마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꽃가루받이를 필요로 하는 식물들부터 그걸 먹고 사는 동물들과 우리 사람들에게도, 아주 뚜렷한 모습으로 찾아온 ‘위기’입니다. 대학원에서 철학을 공부하며 몸과 자연을 주제로 학위논문을 준비 중인 제게는 특히나 많은 고민을 던져 주는 뉴스였습니다.

올해부터 주보에 실리고 있는 ‘공동의 집 돌보기’ 꼭지를 읽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제목대로 자연은 우리의 집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공하고 있는 철학자는 자연이 우리의 집이지만 한 것이 아니라 몸이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감각, 언어, 활동을 통해 우리가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살기에 우리는 외따로 떨어져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며, 우리의 몸은 단백질 덩어리 이상의 존재,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자연을 망가뜨리면서 우리의 터전에 더해 우리 자신의 몸까지 해치고 있는 셈입니다.

전공 공부를 할 때뿐만이 아니라, 교리를 공부하면서도 이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발견하곤 합니다. 하느님께서 자연의 법칙과 사람의 몸을 직접 빚으셨다고 말하는 성경의 구절들이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거룩함에 참여하는 전례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사를 드릴 때마다 육신의 부활을 믿노라 고백하며, 몸을 유지하는 가장 원초적 방법인 ‘먹음’으로써 예수님과 만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청합니다. 교리 지식이 일천하기는 하지만, 제게 있어서 이는 가톨릭 교리와 성경이 몸을 단지 그릇으로만 보지 않고, 몸의 생명에 대해 적극적으로 말하면서 몸이 가진 자연적 특징들을 긍정하고 있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제가 수년간 공부하고 전공으로 삼은 이론에서 그러하듯이.

성당에 다니는 철학도로서, 학문으로서의 이론과 믿음으로서의 신앙이 일치하거나 통하는 지점을 발견하는 순간마다 느끼는 어떤 안도감이 있습니다. 종말이 예정되어 있다고 믿으면서도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기꺼이 삶을 이어나가고 지키기로 마음먹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럽고 경이로운지요. 그 믿음이야말로 ‘나’와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피조물인 이 지구를 염려하고 돌보게 하는 그런 믿음일 것이라고, 꿀벌의 죽음을 나의 죽음처럼 아파할 수 있게 하는 선함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달의 기도 지향 : 우리의 일상을 점검하고 ‘생태적 회개’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울부짖는 우리 어머니 지구 앞에서

(한국 천주교 주교단 특별 사목 교서 해설)

차광준 다윗 신부 임호성당 |

2020년 10월 16일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주교 회의 2020년 추계 정기 총회를 마치며, 한국 천주교 주교단 특별 사목 교서 「울부짖는 우리 어머니 지구 앞에서」를 발표하였다. 한국 주교단은 “코로나19 사태는 산업 혁명 이후 인간이 자연을 무제한으로 개발하고 소비하고 폐기해도 되는 소유물로만 보고 피폐시키고 약탈해 온 결과”임을 천명하면서, 2015년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반포하신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제시 되는, ‘생태적 회개’에 한국 천주교회가 앞장서야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 천주교회는 전교회적 차원에서 2022년부터 「찬미받으소서」가 제시하는 통합 생태론의 정신에 따라 온전히 지속 가능한 세계로 나아가는 7년 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다짐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천주교회는 지역 교회의 가정, 본당과 교구, 수도회, 학교, 병원, 기업과 농업 등 모든 분야에서 이 7년 여정에 동참하기 위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물론 그동안 한국 천주교회는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보전하고자 ‘환경의 날’, ‘농민 주일’과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등에 지속적으로 담화를 발표하며, 피조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도리를 안내해왔다. 하지만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지구의 부르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찬미받으소서」, 49항)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하였음을 반성하며, 앞

으로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기후 변화에 관하여 차등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인식”(「찬미받으소서」, 52항)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생태적 회개를 실천하며 복음을 선포할 것을 다짐하며 특별 사목 교서를 발표한 것이다. 이 결정에 따라 한국 천주교회는 7년간의 생태적 회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한 각 교구와 단체에서 수행해나갈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 실천 지침들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생태적 회개’의 삶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국 천주교 주교단 특별 사목 교서 실천 지침은 1) 가정 공동체, 2) 본당 공동체, 3) 교구 공동체, 4) 사회 공동체 영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내를 주고 있다.

먼저 1) 가정 공동체에서는 소비주의에 물들었던 삶을 회개하는 생태적 기도 바치기, 쓰레기 줄이기, 에너지 절약 습관 가지기, 근거리 농산물 이용 및 채식 생활화를 실천하는 것이다.

2) 본당 공동체에서는 본당 공동체 별로 생태적 회개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기, 생태적 회개를 일깨우는 본당 전례 거행, 다양한 연령 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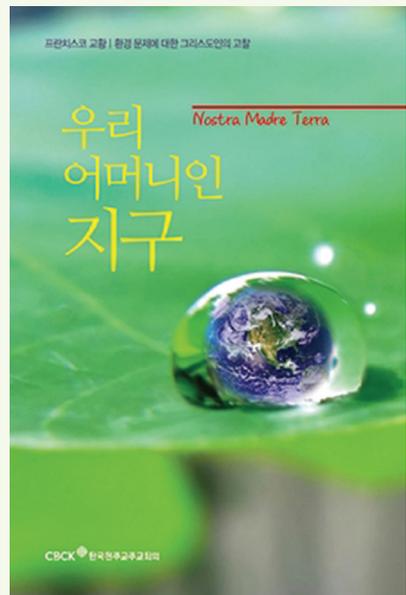
을 겨냥한 생태 교육, 생태환경분과 신설, 우리 농촌 살리기운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3) 교구 공동체에서는 교구 단위의 공식적인 전담 기구를 신설하여 생태적 회개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 각 부서별로 생태 환경 교육 내용 마련, 재정 집행에 있어서 생태 환경성 고려, 교회 내 친환경 에너지 시설 확대, 수도 공동체와 지역사회와의 생태적 연대 활동을 실천하는 것이다.

4) 사회 공동체에서는 모든 신자들이 생태 사도로서의 자각을 통하여, 다양한 직업(정치인, 공무원, 과학자, 교육자, 노동자, 기업인, 농업인, 어업인, 자영업자 등)에 따른 생태 환경적 역할을 높이고, 이웃 종교 및 타 교파와도 생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상호 협력에 나서고, 시민 사회 단체와의 연대에도 적극 나서는 것이다.

한국 천주교 주교단에서 발표한 내용은 사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사항들이다. 또한 많은 신앙인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충실히 그 역할을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천주교 주교단의 호소는 생태적 회개의 삶은 한 개인의 영역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공동으로 요청되어지는 시대적 절박함을 담아내고 있다. 누구보다 더 생태적 회개의 간절함을 우리 신앙인들이 먼저 깨우치며, 개인에서부터 가정, 본당, 교구, 사회 공동체의 영역으로 확장되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한국 천주교회 주교단의 호소에 귀를 다시 한번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기

억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의 석탄 시설이 대부분 멈추었을 때, 우리 지구의 푸른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말이다.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니 좋았다”(창세 1장)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느님 창조 사업에 동참하며 하느님의 아름다운 작품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 자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개발과 소비의 삶이 아닌, 보호와 공존의 삶을 추구하는 생태적 회개의 삶을 다시금 결심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



우리는 왜 자연의 친구가 되어야 하나?

박중록 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



작은 피조물들, 쫓겨나는 새와 갈대에 대한 이야기

갯벌, 강, 늪, 논, 바다의 공통점은 ‘물’이 라는 점이다. 물이 있는 낮은 땅들을 통틀어 우리는 습지라고 부른다. 이 습지를 지키는 국제적 협약인 람사르 협약은 담수이든 해수이든 수심 6m를 넘지 않는 얇은 곳을 습지라고 한다. 우리는 논에서 나는 쌀을 먹고 습지가 제공하는 물과 공기로 산다. 습지는 우리 생명의 토대이다.

생명의 토대 습지

다양한 유형의 습지 중 한국을 대표하는 습지는 갯벌이다. 작년 한국의 갯벌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그중 부산의 물운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성당이 있는 곳이다. 물운대 앞에서 보이는 낙동강은 여러 형태의 습지가 다대포에서 김해까지 이어져 하구에는 끝도 없는 녹색 갯벌이 펼쳐진다. 생물의 종 다양성도 높은 곳이다. 겨울에도 얼지 않는 비옥한 삼각주, 풍부한 영양물질과 대륙과 대양을 잇는 이점까지 천혜의 조건을 가진 철새도래지, 신이 내린 축복의 땅이라 부르던 곳이다.

낙동강의 새들

이 지역은 1966년 자연문화재로 지정됐다. 자연의 중요성을 잘 모르던 시기에도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한 것은 낙동강 하구에 살고 있는 새들이다. 부산의 진짜 대표 새는 고니이다. 고니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있는 멸종 위기 동물로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대부분은 큰고니이다. 큰고니는 날개 폭 2m, 무게 5.7kg~12kg으로 비행하는 새 중 가장 무거운 새다. 이렇게 크고 무거운 새가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땅은 흔치않다. 우리나라에 오는 큰고니 중 75%인 연평균 3000마리가 부산으로 온다. 큰고니는 왜 낙동강으로 올까.

고니의 주식은 풀이다. 낙동강은 여름에 광활한 초록갯벌이 된다. 고니의 먹이가 되는 세습매작은 여름이면 끝도 없이 자라 갯벌을 뒤덮고 가을에 노랗게 익었다가 쓰러지면 큰고니들은 지상부와 아래 줄기의 개경 덩어리를 먹으면서 겨울을 난다. 큰고니가 개밭이 끊이지 않는 낙동강 하구로 오는 이유는 먹이 때문이다. 큰고니가 머무는 10월부터 4월까지 먹을 수 있는 많은 풀들이 낙

되

강인구 스테파노 신부 공무원경찰사목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마르 4,25)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아합 왕이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밭을 뺏었던 이야기(1열왕 21,1-26)가 생각이 납니다. 가진 자는 더 가졌고, 가진 것이 없는 나봇은 가진 것마저 빼앗긴 대표적인 예가 되겠지요.

이런 생각이 따라오다 보니,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불편함을 느낍니다. 입안에서 맴돌지만 삼켜지지 않는 <생선 가시> 같은 느낌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은 복음-기쁜소식-이라기보다, 서글픈 세상의 논리이지 않나??’

분명 이런 의도로 하신 말씀이 아니심에도, 불편해서 피하기만 했던 말씀. 수십 년 동안 품어왔던 물음표를 이제는 좀 걷어내고, 이 말씀의 의미를 찾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들여다본 끝에 마주한 현실...

<가지다>의 기준을 그저 ‘제물’로 단정 짓고 있었던 저 자신이 보입니다. 자본주의-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를 비판적으로만 보고 있던 선입견이 제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겁니다.

<가지다>의 기준은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랍어로 μέτρον(측량하다, 정해진 규격). 우리말로는 한 되, 두 되 할 때의 <되>로 번역이 되었고, 이렇게 우리말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너희가 되질하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받을 것이다.”(마태 9,2)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되어서 받고 거기에 더 보태어 받을 것이다.”(마르 4,24)

<가지다>의 기준이 ‘제물’이 아닌, ‘누군가에게 무엇이 되어준 행실’이었구나 라고 정리가 되는 순간, 생선 가시 같았던 말씀은 달콤한 무언가로 변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마르 4,25)는 말씀이 이제는 이렇게 되묻는 듯합니다.

“너는 누군가에게 무엇이 <되>어주었니??”

“마지막 날, 그 <되>가 너를 심판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사제는 누군가에게 무엇이 <되>어주는 자인가??

우리 자신에게 되물으며, 그 되로 되값아 주실 하느님께 의지하여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로 다가가서 봅니다. 🌿



○○의 눈으로 지구를 바라보기

<숨 쉬는 소설>, 최진영 외 7명

정엄지 마르타 천사네 청년분과

“인간들은 아주 많은 기회를 그냥 흘려보냈음을 깨달았다. 미래에 대해 말하고 상상할 수 있었던 모든 순간이 전부 기회의 순간이기도 했다는 것을.” 『어스』, 조시현

북극곰이 사라지고 있다, 갈매기의 배 속에서 플라스틱이 나왔다, 제주도 구상나무가 멸종 위기에 처했다... 매일매일 지구 곳곳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중 나에게 전해지는 소식은 몇이나 될까요? 지구는 아주 큰 데 반해 나는 아주 작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건은 극히 일부일 뿐이지요. 하지만 지구가 망가지고 있던 사실은 더이상 모른 척 할 수 없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느끼기 위해 책을 펼쳐 봅니다.

<숨 쉬는 소설>은 생태·환경과 관련된 단편소설 여덟편을 묶은 소설집입니다. 엮은이들은 작품을 고르며 “오늘의 문학은 오늘의 지구를 단편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덟 편의 소설은 독성 화학물질, 반려동물, 육식 문화, 쓰레기 처리 등 각기 다른 문제에 집중하며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낸 환경문제는 이렇게나 다양합니다.

책에 실린 소설들은 동시대 인간의 시선에서 벗어나, 미래의 인간 혹은 다른 생명의 눈으로 지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조시현 작가의 『어스』의 배경은 미래입니다. 살아생전 미세 플라스틱 등에 노출된 인간의 몸은 죽은 뒤 유독성 물질을 뱉어내고 급기야 시신은 산업 쓰레기로 분류되고 맙니다. 그러한 세계를 살아가는 미래

의 인류에게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배명훈 작가의 『조개를 읽어요』에는 조개껍데기를 연구하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광활한 지구의 슬한 생명들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인간보다 작은 생명들은 인간

과는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분명 지구의 일부입니다. 김기창 작가의 『약속의 땅』은 북극 생명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그들이 맞닥뜨린 오늘날의 지구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범위 밖에서 일어난 변화로 인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생명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우리 인간은 정말 우월한 존재인가요?

책을 덮고 나면 지구를 읽었다는 느낌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환경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생명의 눈으로 지구를 바라보았다는 점에서요. 인간 위주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미래에 대해 말하고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지구는 아주아주 크지만 인간은 아주아주 작은 존재이고 기회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





한국에 온 어느 필리핀 여성 이야기



우리들의 관심이 필요한 곳이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먹거리 : 대 바실리우스

김현 안셀모 신부 해양사목

먹거리는 우리 삶을 지탱해 주는 가장 근원적인 에너지원이다. 그리고 원재료는 공장이나 식당이 아닌 자연으로부터 생산된다. 그래서 동학에서는 먹거리의 재료를 동식물의 소중한 생명으로 여겨 '식사'를 "하늘이 하늘을 먹는다"(以天食天)라고 표현했다. 그런데 생태환경의 파괴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 먹거리 문제가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기에 일찍이 그 중요성을 깨달았던 대 바실리우스(Basilius, 329/30-379)의 『소 수덕집』Asecticon parvum을 통해 우리의 식습관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음식을 먹는 것이 쾌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도면 충분합니다. 식탐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쾌락을 충족시킨다면, "뱃속을 하느님으로 삼는 것"(필립 3:19 참조)과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은 끊임없이 소모되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보충과 영양분 섭취가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식욕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소모된 육신을 보충하고 먹을거리와 마실거리를 통해 양분을 섭취하는데 있어서는 '올바른 이성을 통해'(secundum rectam rationem)야 할 것입니다.(『소 수덕집』 9, 9-12) 



인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2021년 11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 회의장 앞에 당시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던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한 여러 장면들이 등장했습니다. 기후 위기 게임을 중단하라고 환경 운동가들이 이색 시위를 벌인 것이었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2015년 파리에서 세계 정상들이 약속한 대로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섭씨 1.5도 이내에서 멈추게 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 인류는 기후 변화가 주는 경고의 메시지와와,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의 창궐은 기후 위기와 연관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또 일어날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코로나19가 사라지고 일상을 회복하게 되더라도 과연 우리는 예전의 삶과 사고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조금 더 편리하고 조금 더 풍족한 삶을 꿈꾸었지만, 우리 욕망의 총합은 미세먼지로 뒤덮힌 뿌연 하늘과 기록적인 이상 기후의 소식들로 우리에게 되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찬미받으소서」, 91항). 우리의 사소한 선택과 일상은 자연환경과 가난한 사람들의 삶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저마다 고유한 선과 완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찬미받으소서」, 69항). 생명의 순환 고리에서 인간에게 아무 쓸모가 없어 보이는 작은 미물도 전체로 보면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큰 희생을 치르며 이러한 이치를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저마다 존재 그 자체로 소중하고, 있어야 할 제자리가 있습니다. 그럼, 인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보전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감탄하셨던 그 시선으로 우리도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찬미받으소서」, 98-100항 참조).

“희망은 우리에게 언제나 헤쳐 나갈 길이 있고, 길을 바꿀 수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 줍니다”(「찬미받으소서」, 61항). 이 지구의 울부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에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이 지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희망과 우리의 실천이 만날 수 있는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어떠한지, 우리가 바라는 삶은 어떠한지 성찰하게 됩니다.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믿음과 희망의 지평선을 바라보며 우리의 일상을 점검하고 ‘생태적 회개’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냅시다.🌿

2022년 6월 5일 환경의 날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현동 아바스

2022년 환경의 날 담화문(전문)



정의평화위원회 활동과 소식

+ 5월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약칭: 아세미)

5월 9일(월요일 19:30 가톨릭센터 소극장) 아세미에는 지난 2000년, 부산에서 습지와 새들의 친구를 창립하고 동양 최대의 철새도래지인 낙동강 하구 습지 보호와 천연기념물·멸종위기종 철새들을 난개발로부터 지켜내는 활동을 해온 박중록 활동가(‘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 ‘낙동강하구지킴이시민행동’ 집행위원장)를 초대하여 자연생태계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42주년을 맞이하는 5.18민주항쟁의 희생자들과 중대재해로 죽어간 노동자들을 기억하고 미얀마 군사쿠데타 종식과 민주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과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 2022 사회교리학교 주제강좌

「찬미받으소서」와 함께하는 “생태영성” 개강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2015년 5월 24일 반포하신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7년 여 정인 올해 정의평화위원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중단되었던 사회교리학교를 재개하며 “생태영성”을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이번 강좌에 수도자와 평신도 60명이 참여하였으며, 송영민 아우구스티노 신부의 강의로 1강-바라봄의 영성(5월 18일), 2강-친교의 영성(5월 25일)을 통해,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성찰과 변화의 삶을 다짐합니다.



| 3강 / 일시 | 강좌명 | 강사 | 장소 |
|-----------------------|--------|---------------------------------|-----------------|
| 6월 1일 (수) 오후 7시 | 살림의 영성 | 송영민 아우구스티노 신부 (대구 가톨릭대학교) | 가톨릭 센터 3층 |

+ 경동건설 고 정순규 미카엘 형제 항소심 전 탄원서 제출 및 기자회견

정의평화위원회는 5월16일과 23일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전국의 사회적 참사 피해자단체와 종교계, 노동시민사회단체 등 218개 단체의 뜻을 모아 경동건설 고 정순규 미카엘 형제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경동건설 하청노동자 故 정순규님 산재사망 책임자에 대한 엄중처벌 촉구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5월 26일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변경사유 없이 재판부의 직권으로 선고일을 6월 23일로 변경하면서 유족에게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이에 유족과 ‘중대재해없는 부산운동본부’는 5월 26일 오전 11시, 경동건설 사건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부산법원 앞에서 가졌습니다.



+ 미얀마 민중과 연대하는 릴레이 캠페인

5월 29일(주일) 오전 11시, 부산역 광장에서 진행된 ‘미얀마 군부쿠데타 종식과 민주항쟁지지 68차 릴레이 캠페인’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과 평화를 위한 피켓팅에 참여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여전히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뜨거운 햇볕 아래서 피켓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 민주주의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주시시오.

+ 소성리 평화미사

정의평화위원회는 5월 30일(월) 오후 2시, 소성리마을회관 앞 천주교 공소에서 교구 사제와 평신도가 함께 한반도 평화와 사드 철거를 요구하는 평화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방위비를 증강하는 것이 평화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5월 10일 출범한 윤 정권은 인수위 시절부터 제2의 사드 배치 필요성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보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반대와 평화를 요구하는 요즘, 위정자들이 평화의 길을 모색하도록 함께 기도해주시시오.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9일 기도 (가톨릭 기도서 109쪽 / 매일미사 204면)

- 6월 17일(금):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회심을 위하여
- 6월 18일(토): 북한과 미국, 남한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 6월 19일(일): 한반도의 비핵화와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위하여
- 6월 20일(월): 경제제재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 6월 21일(화): 남과 북의 복음화를 위하여
- 6월 22일(수): 이산가족과 탈북민들을 위하여
- 6월 23일(목): 한반도의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위하여
- 6월 24일(금): 평화의 일꾼들을 위하여
- 6월 25일(토): 한반도에서 종전이 선언되고 평화체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



후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4월 16일 ~ 5월 15일)

강운자 강인순 강정웅신부 고은영 권성일 권용대 권중희(2) 김경란 김경숙 김광숙 김귀애 김두리 김선영 김인한신부 김종경 김진호신부 김흥기 나경문 류창훈신부 류형숙 맹정은 박위옥 박정학 박종민신부 박준철 박종록 배미희 법무법인민심 법무법인부산 변지혜 서경혜 손석호 송석희 신정금 심서경 심재영 아리 우무섭 유상우신부 유한이 윤영훈 윤용웅 이미영 이봉룡 이성애 이소라 이우형 이윤호 이영복 이영훈신부 이정기 이정미 이형규신부 장원창 장은경 전나미(2) 전동묵신부 전태일 정성호신부 정종태 정호신부 조계환 조동기 조동성신부 조영심 주님의축복을 차광준신부 최상국 최우인 최재경 최혁신부 최현욱신부 하민진 허재현 황수엽 황진

| 원고 후원 | 김아영 김현신부 박힘찬신부 유상우신부 전동묵신부 한상엽신부

정의평화위원회를 후원(자동이체 신청)해주십시오.

정의평화위원회 후원계좌

- 농협 301-0465-9508-21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정평위)
- 부산은행 113-2000-8639-05

>>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정의평화위원회의 소중한 사업비로 사용됩니다.

>> 후원인 가운데 연락처나 주소가 변경된 분, 그리고 소식지(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이야기)를 이메일로 받아보실 분은 정의평화위원회 사무국으로 연락해주십시오. ☎ 051-465-9508)

2022년 6월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민간 운영이 효율적이라는 환상

의료민영화 의료민영화

2022. 06. 13.(월) PM 7:30 / 가톨릭센터 소극장



강사 : 정형준

(녹색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문의 : 051-465-9508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전화 051-465-9508 주소 48968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71 가톨릭센터 5층

이메일 busanjustice@naver.com 홈페이지 busanjustice.pbcbcs.co.kr